

HYUNDAI E&C TODAY

Vol.342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사보신문〉에서는 테마로 대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완성애운 자랑스러운 역할을 통해 도전 DNA를 일깨우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hdec.kr>

2017 / 10 / 11 / Wednesday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중로 라00049

Roads Hyundai E&C have paved, new roads for the future

What Hyundai E&C has achieved is often described with superlatives as it set unprecedented examples in the area of road construction. As for highway construction, Korea's primary builder made its debut in the overseas market.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Pattani-Narathiwat Highway (1968) in Thailand, Hyundai E&C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Korea's only builder with experience in construction of expressways.

The builder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by constructing a whole network of roads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Despite poor weather conditions and various challenges, Hyundai E&C set out to build roads even in deserts and jungles. Most recently, the Lusail Expressway running through the center of Qatar is slated to be open at the end of this year. The builder's state-of-the-art construction technology will be epitomized by the new expressway for which Hyundai E&C adopted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Hyundai E&C has built a total of 3,300-kilometer roads around the globe. It has opened up infinite possibilities by making new roads in areas where everyone says it is impossible to do.

해외건설 첫 포문부터 국경과 난관을 뛰어넘은 3300여km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1968



인도네시아 자코라위 고속도로 1979



쿠웨이트 파하힐 고속도로 1988



이라크 요시 고속도로 1989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2017



경부고속도로 1970



경인고속도로 1968



영동고속도로 1971



남해고속도로 1973



88올림픽고속도로 1985



제2 영동고속도로 2016

현대건설이 만들어 온 길, 열어갈 길

현대건설 역사에는 유독 ‘최초’ 혹은 ‘최고’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을 스스로 개척한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6·25전쟁 중 군사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노하우를 쌓던 현대건설의 고속도로 정식 데뷔는 해외였다.

국내 최초 해외 진출의 대역사를 쓴 태국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1968) 이후 대한민국 국가 산업의 대혈맥을 뚫은 경부고속도로(1970)까지 현대건설은 국내 유일의 고속도로 건설 경험 보유 건설사였다. 이후 경인고속도로(1968), 영동고속도로(1971), 남해고속도로(1973), 88올림픽고속도로(1985), 중부고속도로(1987) 등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잇는 사통팔달의 길을 닦아 경제 발전을 견인한 현대건설은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이 도입된 제2 영동고속도로(2016), 바다로 단절된 국도 77호선을 국내 최장의 해저 터널로 관통하는 보령-태안 1공구 등을 선보이며 미래 건설기술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국경을 넘어 사막과 밀림에도 길을 냈다. 인도네시아 자코라위 고속도로(1979), 쿠웨이트 파하힐 고속도로(1988), 이라크 요시 고속도로(1989), 말레이시아 남북고속도로(1992) 등은 열악한 환경과 각종 난제 속에서도 성공적 완공을 이뤄낸 역작들이다.

최근에는 카타르의 도심을 관통하는 루사일 고속도로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도로 역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적용돼 그간 현대건설이 개발해온 첨단기술이 집대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지구상에 건설한 도로는 총 3300여km. 모두가 길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 새로운 길을 놓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온 것이다.



Hyundai E&C has been awarded 10-trillion-won Banpo Jugong Complex 1 project

Hyundai E&C selected as a joint project contractor on September 27

Our company has been selected as a joint project contractor for the Banpo Jugong Complex 1 project by obtaining a total of 1,295 votes in the general meeting convened to select a project contractor for redevelopment of Banpo Jugong Complex 1 on September 27, beating GS E&C with 886 votes. Market pundits said that Hyundai E&C's willingness to create absolute masterpiece housing as a global leading builder won the heart of member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Construction costs are expected to be valued at about 2.63 trillion won, and the

total project costs including relocation expenses and installment payment loans will reach 10 trillion won. The existing apartment buildings of six stories above-ground with 2,120 units will transform into the mega-size apartment complex of up to 35 stories aboveground with 5,440 units.

Our company is planning to utilize all our capabilities to build the building exterior in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design the new apartment complex in a way to maximize the scenic view of the Han River, develop a floor plan tailored to tastes of residents, offer the best apartment environment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조감도.

and community, and introduce state-of-the-art energy reduction technologies.

CEO Jung Soo-hyun said that Hyundai E&C would play the leading role in

creating a new housing paradigm by integrating its 70-year experience, technological process and accumulated knowhow.

사상 최대 10조 재건축 ... 현대건설, 반포주공 1단지 품었다

지난달 27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회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총 1295표를 얻어 886표에 그친 GS건설을 제치고 ‘반포주공 1단지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글로벌 건설 명가

로서 우리 회사의 100년 주거 명작을 선보이겠다는 의지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이다.

반포주공 1단지는 공사비만 약 2조 6300억원에 사업비,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을 더해 전체 사업 규모가 10조원에 이른다. 현재 지상 6층, 2120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5440세대(전용면적 59~212㎡)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

우리 회사는 반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단지 내·외부 설계, 입주고객의 취향에 맞춘 평면 개발, 최고의 단지 환경과 커뮤니티, 첨단 및 에너지절감 기술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화된 아이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 정수현 사장은 “현대건설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믿어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현대건설 70년의 경험과 기술력, 축적된 노하우를 집약해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이끄는 본보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건설기업 5년 연속 ‘세계 1위’

우리 회사가 최근 발표된 ‘2017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평가에서 8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된 동시에 5년 연속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업종 선도기업(Industry Leader)’으로 선정됐다. 특히 우리 회사는 해외 매출 1, 2위 건설기업인 스페인의 그루포 ACS(Grupo ACS), 독일의 호흐티프(HOCHTIEF) 등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업종 선도기업’ 부문에서 5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 회사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우리 회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문은 환경

(기후변화 전략, 자원 보존) 분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으로 지난해 9만 371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15개국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도 수상을 견인했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와 투자 전문기관인 스위스 ‘로베코SAM(RobecoSAM)’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지속가능 투자지수다.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 중 상위 10%의 지속가능성 우수기업을 선정해 ‘DJSI World’를 부여한다.

2017 현대건설 기술대전 시상식 개최

우리 회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도곡동 소재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임직원, 업계 관계자, 대학(원)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현대건설 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기술대전에는 인프라·건축·플랜트·에너지환경 등 건설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이외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융·복합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출품됐다. 총 140여 건의 기술·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세 차례의 사내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 2건을 포함한 12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싱가포르로 공모 범위를 확대해 우리 회사와 공동연구소를



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 난양공과대(NTU)와 싱가포르 국립대(NUS) 학생들이 응모해 이 중 한 팀이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자들에게는 연구개발지원금 외에도 기업 부문은 현대건설 협력업체 등록 등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 부문 수상자 전원은 입사 지원 시 혜택을 받는다.

제4기 힐스테이트 품키움 멘토링 봉사단 발족

우리 회사가 9월 15, 16일 양일간 현대산농장 아산연수원에서 제4기 ‘힐스테이트 품키움 멘토링 봉사단’의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멘토 직원 교육 ▶전문 강사 강연 ▶멘티 청소년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직원, 청소년, 대학생 총 48명이 6개 조로 구성된 4기 봉사단은 향후 10개월간 멘토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 회사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시행 중인 ‘힐스테이트 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당사 임직원과 대학생이 학업 진행과 진로 설정을 도와주는 교육 장학 활동이다. 단순 조별 구성이 아닌 청소년의 장래 희망에 맞춰 해당 분야 전공 대학생과 임직원을 선발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 수주

우리 회사가 지난달 28일 1000억원 규모의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를 수주했다.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는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연면적 4만 232㎡의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 2개 동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기존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데이터센터의 노후에 따라 이전 및 건립하게 된 통합 IT센터는 업계 최고의 친환경 그린데이터 센터로 구현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21개월로, 2019년 6월 말 준공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금융결제원, KT 목동 IDC, NH 통합 IT센터 등 다수의 데이터센터를 시공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 공사를 수주했다.

‘고덕 아르테온’ 10월 분양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림산업)은 10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고덕주공 3단지



의 재건축 단지인 ‘고덕 아르테온’을 분양한다. 고덕 아르테온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41개 동, 총 4066가구 규모로 이 중 139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올해 강남4구 재건축 조합 사업 물량 중 최대 규모다.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별로 ▶59㎡ 101가구 ▶84㎡ 1167가구 ▶114㎡ 129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의 약 91%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지구는 2만여 채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도시 규모의 주거지로, 고덕 아르테온은 고덕지구 핵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한번에 누릴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출구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2개소는 추가 신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0년 2월 예정이다.

그림사 소식

현대자동차, 환경 개선 활동 ‘화(花)려한 손길 캠페인’ 실시

현대자동차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캠페인의 여덟 번째 이야기를 진행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3일 한국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형 메시지 전달 활동을 여의도 공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700명이 넘는 시민이 함께했다. 현대차와 한국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은 2014년 4월부터 서울시의 환경 개선 캠페인인 ‘화(花)려한 손길 캠페인’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 여덟 번째 활동인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정왕박람회장이 열리는 기간에 진행돼 환경 친화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원 문화 확산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현대차는 이번 ‘화(花)려한 손길 캠페인’ 행사 당일에는 여의도 공원 내 보드게임 콘셉트의 현대차 공원 조성, 대형 설치미술품인 아트월 설치 등 시민 참여 기반 활동을 마련했다. 또한 꽃 장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플라워 클래스, SNS 이벤트인 H+메시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현대엔지니어링, 나이지리아 가스발전소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달 22일 나이지리아 온도(Ondo) 가스(LNG)터빈발전



소 1단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인 라고스 북동쪽 170km의 온도 공업단지에 발전용량 550MW 가스터빈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4개월이다. 준공 후 킨라인디벨로먼트 나이지리아는 향후 20년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나이지리아 정부 산하 전력회사(NBET)에 전량 판매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된다. 발주처이자 글로벌 발전 전문 디벨로퍼인 킨라인디벨로먼트 나이지리아가 현대엔지니어링의 발전소 건설 기술력과 대외 신인도를 인정해 먼저 입찰을 제안해 왔다. 향후 발주처 ‘온도 550MW 가스터빈발전소 페이즈II’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대형 플랜트 건설시장으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PHOTO NEWS

“가족과 함께 애사심·단결력 키운 최고의 시간”

제19회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우리 회사 임직원 및 가족 5600여 명이 9월 24일 임진각에서 문화일보-경기도-경기관광공사 주최로 열린 제19회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오전 9시30분 임진각을 출발해 각자의 기량에 따라 풀코스·하프코스·10km·6km를 달렸다. 우리 회사는 2002년부터 다양한 마라톤 대회를 통해 애사심과 단결력을 다져오고 있다.

Great minds construct people-oriented cities

Sept 14

In recent years, Seoul has been slowly introducing architectural projects that attempt to breathe life into new public spaces in the city. Since this metropolitan city with 600 years of rich history has rapidly developed into one of the most energized concrete jungles in the world, Seoul Mayor Park Won-soon has stressed that it's time to "shift the focus to history, culture, nature and most importantly, the people so that Seoul can turn into a more people-oriented city." This emphasis on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has been on display for the world renowned architects who gathered in Seoul for the prestigious UIA 2017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During the event, French architect Dominique Perrault and the Pritzker Prize-winning architect Toyo Ito, especially stressed their belief that the "Soul of City," the theme of this year's event, lies in the public.

Looking underground for the roots of public space

Since Dominique Perrault, best known for the expans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France as well as the extension to the Pavillon Dufour at the Palace of Versailles,



Extended Pavillon Dufour at the Versailles.

has worked on a number of projects that involve the architecture of underground spaces. For Perrault, using underground space doesn't necessarily mean digging deep. The best example of his "ground-scape" concept is the underground Ewha Campus Complex (ECC) at Ewha Womans University, which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next year. Going underground, Perrault explains, also increases architectural density and stops the city from expanding horizontally, which results in destroying nature above ground.

The architect also launched a project of designing an underground network in central Seoul together with 60 university students from Swiss Institute of Technology (EPFL) and Ewha Womans University.

"I'm not against building huge skyscrapers," he added. "I actually have built a lot of them. But my interest now is to connect those skyscrapers above ground with the ground floor and break away the boundaries and allow people to have more open spaces and freer access."

Creating buildings to bring people closer to nature

Award-winning Japanese architect Toyo Ito, 76, says the image he has of Tokyo in the near future is "a city covered by homogeneous grid." For the architect, nature and people are the two most important factors when designing buildings, as "human beings are part of nature and architecture is also a part of nature." In 2011, when a huge earthquake followed by a tsunami devastated northeastern Japan, the architect came up with the "Home-for-All" project, which



1 Ewha Womans University's underground ECC campus. 2 The exterior of the new library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s College of Social Sciences.

he describes as "an attempt to provide places - public spaces - where victims who lost their homes can meet and enjoy time together." "It is still small, but it is open to nature, similar to the farm houses that they are familiar with," he said.

For the new library for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 of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Ito says he imagined a com-

fortable space. It realized this by creating a building with a pattern that looks like the leaves of a lotus. The National Taichung Theater in Taiwan, completed last year, is also Ito's design, and took 11 years to realize. "I heard more people come to just wander around and enjoy the atmosphere than to see the opera," he said, chuckling.

By KOREA JOONGANG DAILY

'Kingsman' stars make stop in Korea

Sept 22

To promote "Kingsman: The Golden Circle," three gentlemen spies have suited up and traveled to Seoul to meet with Korean fans. Having arrived in Seoul on Sept. 19, Colin Firth, Taron Egerton and Mark Strong met with Korean press on Sept. 21

at the Yongsan CGV Cinema in Seoul and revealed their thoughts about the movie, and expressed their gratitude towards Korea for the enthusiastic welcome.

"It's very special for us to be here, because we all feel this film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is country. I felt that if



there's anywhere I wanted to bring 'Kingsman' the film, it's here in Seoul," said Firth. The first "Kingsman" movie attracted over six million local moviegoers in 2015, and the fans are eager to see how the gentlemen are going to save the world this time.

By KOREA JOONGANG DAILY

Group News

Hyundai Motor Consistently Ranked Among World's Top-Valued Brands by Interbrand

Hyundai Motor has maintained its position in the top 40 global brands for the third year in a row, according to the latest rankings published by global brand specialists Interbrand. Hyundai Motor retained its place as the world's 35th most valuable brand despite challenging conditions in many global markets, with its brand value growing to US\$13.2 billion - a 5.1% increase on the previous year. Hyundai Motor sold 4.86 million units globally and maintains sixth position in the global automotive rankings, above Audi, Nissan, Volk-



swagen, and Porsche. This follows a period of exponential growth for South Korea's leading automotive manufacturer that has seen a four-fold increase in brand value since 2005, increasing from US\$3.5 billion to its current record value.

Kia Motors Constantly Increases Global Brand Value

Kia Motors has been ranked among the highest valued brands in the world once again, according to Interbrand's 2017 'Best Global Brands' report. The latest study confirms Kia's brand value has grown 6% in the last 12 months, to US \$6.68 billion. For the second year running, Kia is named the world's 69th most valuable brand in the report, its latest valuation representing a 645% increase in the value of the Kia brand since 2007. Now the 11th most valuable automotive brand, Kia is ranked ahead of dozens of 'household name' consumer brands, as well as a



host of volume, premium and luxury car manufacturers. "This result provides us with further motivation to continue our mission to become the most desirable automotive brand." Charles Suh,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Corporate Marketing Division at Kia Motors said.

10 minute Korean Lessons

Basic



Have a safe trip
잘 다녀오세요

Situational context

Yeong-min will go to his hometown for his vacation. Michael wants to tell Yeong-min to have a good trip and to come back safely. At that point, he can say, "잘 다녀오세요."

Today's dialogue

마이클 영민씨, 고향에 가신다면서요?
잘 다녀오세요.
Yeong-min ssi, gohyang-e gasindamyonseoyo?
Jal danyeo-oseyo.
영민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ne, jal danyeo-ogesseumnida.
Michael Yeong-min, I heard you will visit your hometown. Have a safe trip.
Yeong-min Okay, I will.

One more expression

When you say good-bye to older people, you can say "안녕히 다녀오세요."
(Have a good day.)

Intermediate



That was close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Situational context

Yeong-min was about to cross the street when a motorcycle suddenly came out from the alley and passed just in front of him. He wants to express his luck that he was not hit. At this point, he can say,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Today's dialogue

영민 아까 오토바이가 갑자기 제 바로 앞으로 지나갔어요.
akka otobaiga gapijagi je baro apeuro jinagasseoyo.
마이클 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ne! hamateomyeon keunil nal ppeonhaesseoyo.
Yeong-min Some motorcycle just came out of nowhere and passed right in front of me.
Michael Oh! That was close.

One more expression

'Verb(으)르 뻔했어요' can be said in cases such as "급하게 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I almost fell down because I was in a rush) or "다른 사람의 약을 먹을 뻔했어요." (I almost took someone else's medicine.) to express that you just avoided a bad situation.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Innovation to the core value

2017 현대건설 혁신대상

혁신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까'라는 사소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우리 회사 역시 작은 아이디어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2011년부터 '현대건설 혁신대상'을 시행 중이다. '현대건설 혁신대상'은 우리 회사 고유의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 혁신사례 '공유의장'으로 성장 중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개인 부문을 신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가치를 조직 문화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는 제출된 총 48개 과제 중 1·2차 심사를 거쳐 조직 부문(▶제조 혁신 ▶서비스/인프라 ▶조직문화)에서 6개 과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수상작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관하는 '2017년 변화와 혁신리더스 대상'에 우리 회사 대표로 출품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글·정리=이희정



국내 최초 공동주택 제로 에너지 통합설계 구현 연구개발본부



대상을 받은 친환경건축연구팀.

Q. 과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성능이 우수한 단열재와 패시브 설계기술, LED 조명이나 환기시스템, 보일러 등 설비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액티브 설계 기술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한전 전기·화석연료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적용된 에너지의 '생산-저장-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들을 통합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Smart BEMS 기술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설계(안)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제로 에너지 건물 통합 설계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는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을 획득했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상쇄하고 분양수

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Q. 대상 수상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 센터(GSIC, 2014년 준공)의 설계·운영 노하우와 연구개발·실증을 통해 검증된 건물에너지 저감 기술을 토대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에서 국토교통부 제로 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Q. 함께 수고한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과제는 (옛)그린도시연구팀 팀원들이 혼연일체로 밤을 낮처럼 밝혀 '연구개발'에서 '검증·제안'까지 이뤄낸 산물입니다. 힘을 합쳐 기술개발에 앞장선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연구원들이 이제는 회사의 기술 솔루션 도출과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의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써온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프로젝트를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협업해주신 유관부서 담당자께도 감사드립니다.
Q.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로 에너지 건물 구현을 위한 통합 설계기술은 정부가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입니다. 우리 본부는 본 과제의 추진 성과와 그동안 축적된 기술 및 역량을 토대로 '동탄2 신도시 에너지자립마을' '행복도시 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등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자립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이 기술이 우리 회사의 핵심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oT 기술기반 건설현장 관리혁신 연구개발본부+PRM 사업부



'IoT 기술기반 건설현장 관리혁신' 서비스는 건설현장에서 활용하는 상용차량 및 중장비의 운행정보(연료 소비량, 속도, GPS 등)와 인부에 부착한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정보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건설현장을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 관제의 주요 기능은 대기 지연, 사고로 인한 투입물 저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운영비용 절감 및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관제는 인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위험지역 출입 제한, 경고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

을 지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술 입찰형 사업 내 효율성·안전성 증대 측면의 차별화 전략 수립을 하는 한편 인·프라·건축·플랜트·전력 등 건설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와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문화 활동 기획실

기획실은 지난해 '환골탈태'를 키워드로 더 나은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변화와 도전'과 관련한 다채로운 조직문화를 추진했습니다. ▶Better Junior(기획실 주니어직급 대상 교육 등) ▶Trend Catcher(기획실 OJT, 주요 업무 공유, 특수전공 직원 발표 등) ▶스마트한 도전 캠페인(개인별 도전목표 달성 장려 활동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역량향상 교육 기회 제공하고 소통과 상호 협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효율적 조직운영, 핵심 가치 내재화 지수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기술개발

연구개발본부

조류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를 이용해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본부는 '신형식 조류발전 지지구조물'과 세계 최초 '조류발전 전용바지선'의 개발을 통해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현장이 위치한 인도 울돌목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속이 빠른 곳으로 해상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공사 시기(최장 정조 시기)를 선정하고, 철저한 시공 단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지구조물 실패' 설치를 단 1회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각 시공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현장 적용

인프라환경사업본부+연구개발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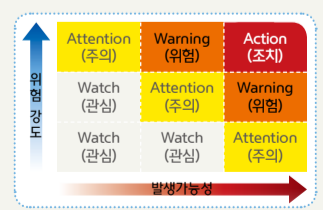
'교각 자동화 시스템'은 교각 개소가 많은 교량의 공기 단축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개발한 가설 장비입니다. 유압으로 자동 개폐가 가능한 폼과 선조립 철근망을 이용해 기존 2~3회 분할 시공하던 교각(10m 이상)을 일괄 시공함으로써 공기를 50% 단축하고 시공 생산성을 25%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 시공(2015년 완료)과 현장 적용(장항선 2단계 4공구 대장1교, 2016년 완료)을 통해 성능과 시공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올해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 입찰 설계에 적용해 수주에 기여했습니다.



입체적 하도급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도입/운영

구매본부

클레임 예방, 부실화 조기대응을 통한 수행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입된 '하도급 RM프로세스'는 '식별-평가-대응-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 식별 활동을 하고 입체적 RM 분석을 통해 실제 문제 발생 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 혁신적입니다. 상생 관점에서도 협력사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어 협력사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과제 수행 시 발휘된 외주실 임직원 간, 대내외 조직 간 협력 경험을 성공 DNA로 삼아 더 큰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구매본부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를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말했다. 건축, 디자인, 기하학, 공학, 과학, 제도 제작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일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풀러는 자신만의 확고한 인류애적 철학으로 제1·2차 세계대전 전후 상황에 획기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선보였고, 에너지 절감 및 대량생산 건축물 등 미래지향적 건축물을 제시했다. 정리=김보나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2
2017/10/11/Wednesday



1 버크민스터 풀러의 대표적인 몬트리올 엑스포의 미국관. ©Cedric Thevenet via wikimedia, CC BY-SA 3.0 2,3 헨리포드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다이막시온 하우스. 원형 구조에 거실과 방, 욕실로 구성돼 있다. ©the Henry Ford 4 1964년 1월호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한 버크민스터 풀러. ©Boris Artzybasheff via http://content.time.com/time/coversearch 5 다이막시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다이막시온 차. ©Starysatyr via wikimedia, CC BY-SA 3.0

미래 건축의 선구자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

(1895~1983, 미국)

시대를 앞선 종합 디자이너

트렌드에 한 발 앞서 미래에 필요한 것을 설계하는 사람.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설명하면 바로 이렇다. 그의 작업이 얼마나 상업적·보편적 성공을 거두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가 내세운 공학적 원리와 기술들은 분명 반세기 전인 1950년대 당시를 물론, 지금까지도 귀감이 된다.

풀러는 단지 건축가로 불리길 원하지 않았다. 전통과 양식의 기준에 얽매어 건물 외관에 치중하는 건축가는 더 더욱 아니었다. 1970년 미국건축협회는 풀러의 대표적인 작품인 지오데식 돔과 다이막시온 하우스 등의 가치를 인정하며 평생공로상 금메달을 선사했다. 그러나 풀러가 처음부터 큰 뜻을 가지고 건축에 임한 것은 아니었다. 1895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메사추세츠의 밀턴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에 입학했으나, 입학 후 학업을 게을리했다. 1913년에 시

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정학을 당한 그는 가족들의 권유로 캐나다의 방직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이후 정육공장에서 출납계원으로도 일했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 해군에 입대했다. 해군에서 제대한 후 방황하던 그에게 장인인 건축가 제임스 먼로 홀렛이 함께 새로운 회사를 차리자고 제의했다. 그렇게 세운 회사 '스톡케이드 빌딩 시스템'을 통해 풀러는 건축업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풀러의 작업 철학, 다이막시온 프로젝트

풀러의 주택 디자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는 대량생산이었다. 건설 및 건축소재 회사인 스톡케이드는 홀렛이 1차 세계대전 중에 발명한 섬유형 콘크리트 블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블록은 경제적이고 튼튼하며 가벼웠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이러한 특징들이 향후 풀러의 대량생산 주택 디자인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첫 번째 독자적 프로젝트가 다이막시온(Dymaxion) 하우스다. 다이막시온은 다이내믹(Dynamic), 맥시멈(Maximum), 텐션(Tension)의 합성어로, '최소한의 에너지와 재료로 최대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건축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 철학을 담은 이 단어는 곧 풀러와 동의어가 됐다. 캔자스주 위치토에 있는 항공기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다이막시온 하우스는 오늘날의 이동식 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과 흡사하게 모든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다. 외관과 내부는 평평한 천장의 둥근 형태인데, 외장재로는 전쟁 기간 동안 축적

한 항공기 생산 기술을 활용해 가볍고 구부러지는 알루미늄 판을 사용했다. 내부는 두 개의 침실과 두 개의 욕실, 부엌, 그리고 거실로 이뤄졌으며 혁신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었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샤워 시설과 회전식 옷장 등이 그 예다. 지붕에는 자연바람을 이용한 냉방 및 공기 순환 시스템을 위한 중앙 안테나가 달려 있다. 무엇보다 이 집은 언제든 지 트럭 한 대로 실어 나를 수 있을뿐더러 손재주가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하루 안에도 세울 수 있다.

풀러는 대량생산 주택이 전국에 세워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이막시온 하우스는 실제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풀러의 경력의 출발점이 됐다. 그는 다이막시온 하우스에 쏟은 관심을 기반으로 일체형 금속 욕실과 다이막시온 차 등 차후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냈다. 욕실은 모든 필수품을 담아 이사 갈 때 아이스박스나 소파처럼 쉽게 옮길 수 있었고, 다이막시온 차는 1930년대 초 12.7km/L의 놀라운 연비를 자랑했다. 차는 헨리 포드의 관심을 끌긴 했으나 제작되지 못했으나 그 원형이 휘트니 미술관에 전시됐다. 풀러는 매일의 일기를 'Dymaxion Chronofile'이라는 이름의 28개 간행물로 엮어 그의 삶과 철학, 아이디어를 문서화했다.

신개념 20세기 건축, 지오데식 돔

대량생산된 사면체 부품들로 구성된 반구형 조립식 지붕의 지오데식 돔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건축적 혁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오데식 돔은 내부 지지대 없이 최소한의 구조로 최대강도를 구현하며, 각 삼각형의 이음새를

구조 중 가장 튼튼하게 만들고, 방수기능을 갖췄다. 규모의 제한도 없고 내부 공간이 넓으며 활용도 용이하다. 이 디자인으로 풀러는 1954년에 특허를 받았으며, 지오데식 돔의 성공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같은 해에 건축가 쇼지 사다오와 작업을 시작해 1964년 Fuller&Sadao 건축회사를 세웠다. 이 회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몬트리올 엑스포67에 선보일 미국관을 대형 지오데식 돔으로 짓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Montreal Biosphere'다. 1958년에는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의 유니언 탱크 차수리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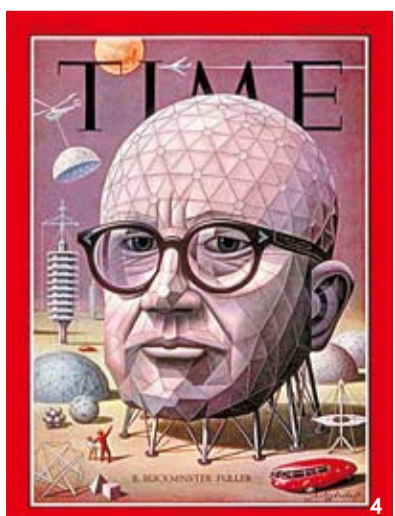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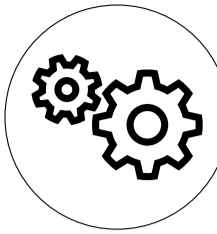
사용한 친환경 돔이, 2013년에는 오스트리아에 유리 및 목재를 재료로 한 돔형 주택이 건설됐다. 칠레에는 천막 형태의 지오데식 돔 호텔 '에코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던 버크민스터 풀러는 사상가·발명가·건축가·작가이자 공상가였다. 그는 인류사회가 곧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주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는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 또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기계적 측면에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결과 추구 미래 건축에 필요한 다양한 개념 제시

장에 직경 117m의 돔을 만들기도 했다. 풀러는 다이막시온 하우스와 더불어 지오데식 돔이 전쟁 후 주거 공간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과 아내는 직접 일리노이주 카본데일의 지오데식 돔에서 살았다. 주거용 지오데식 돔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몇몇은 랜드마크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거주 가능한 알루미늄 돔 주택이 등장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르웨이의 알루미늄과 유리를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거대한 배에는 트림 탭(trim tap)이라는 조그만 장치가 달려 있는데, 배 운항 시 안정감을 높여주는 작은 키 역할을 한다. 트림 탭을 움직이면 힘들이지 않고 키를 움직일 수 있다. 풀러는 이를 인용해 "누구나 트림 탭이 될 수 있다.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개인 들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말했다. 풀러는 자신의 묘비에도 "나를 트림 탭으로 불러 달라"고 적을 정도였다. 무궁무진한 창조성에서 비롯된 그의 전방위적 발명은 현대 및 미래 건축의 방향을 이끄는 데 분명 트림 탭과 같은 역할을 했다.





계동 본사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인천 영종도. 정부의 인프라 개발 정책으로 섬 전체가 '동북아 관광 허브'로 변모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 회사 메가스타 영종 현장이 있다. 현장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완공(9월 30일)에 앞맞춰 10월 중순 준공 예정이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2
2017/10/11/Wednesday

Hyundai E&C builds multipurpose complex in Yeongjong Island



Yeongjong Mega Star workers posing at the construction site.

Hyundai E&C's Mega Star is located in Yeongjong Island which is going through a transformation into a tourism hub in Northeast Asia as part of Korean government's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licy. Large-scale projects are being conducted across the island to construct the Passenger Terminal 2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Inspire integrated resort, and the LOCZ's integrated casino resort, attracting a large number of tourists at home and abroad.

Station, Yeongjong Mega Star boasting a total floor area of 94,792 square meters has 10 stories aboveground and three basement levels. The multipurpose facility offers parking areas in basement levels; shops in the first and second stories; and 418 rooms of the world-renowned hotel chain Howard Johnson, 349 rooms of Day's Residence, and 344 studio apartment units between the third and tenth stories.

What is the most impressive about Mega Star is the E-shaped design of the building. "The courtyard was design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floor area ratio, efficiency and openness of the complex," said an official at the construction site. "The courtyard gives visitors a sense of spaciousness even when they are inside the complex."

Supply of construction materials and manpower was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the construction site. Disruptions in the supply of materials and manpower led to delaying the work of exterior stone finishing. To solve the problem, the construction site chose the unit panel system over the conventional exterior wall

cladding using granite, which could reduce a number of workers, cut back on the construction period, secure uniform construction quality and decrease required amount of framework.

Finishing materials proposed in the initial design were not only unpractical but also bucked the latest trend in hotel interior design. With technological support from the headquarters, the construction site modified the initial design based on the knowhow amassed from the global hotel projects performed by Hyundai E&C.

Safety was also under control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A facial recognition machine was installed to prevent those who did not complete safe-

ty-related training courses from entering the construction site, and a safety bulletin board was set up to enable workers to identify a wide range of construction information. In addition, a weekly construction progress meeting was held to mediate opinions among different construction sections and minimize incidents. As a result, no major accidents took place, and the construction is slated to be completed on time.

As of October 11, 99.9 percent of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As a landmark in the island, the multipurpose complex is expected to g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a positive impression about Yeongjong Island and Korea.

Despite difficulties in supply of materials and manpower, rigorous control of construction progress schedule led to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n time.

'동북아 관광 허브' 영종도에 랜드마크형 복합단지를 짓다

운서역세권에 위치 - 일지 탁월해

대한민국에서 인천 영종도만큼 들쭉이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영종도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스파이어 북합리조트, 리포랜드시저스(L.OCZ) 복합 카지노 리조트 등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도처에서 진행 중이다. 개발 프로젝트가 속속 진행되면서 관광역도 크게 늘었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인천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울 지역으로의 진입도 용이한 인천 영종도의 운서역세권에 목기를 가장 원했다.

운서역 1번 출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메가스타 영종은 대지 1만2229㎡에 연면적 9만4792㎡,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시설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하층은 주차장, 지상 1~2층은 상가, 3~10층에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 하워드 존슨 호텔(418실), 데이즈 레지던스(349실)와 오피스텔(344실) 등이 들어선다. 개별 호실 분양이 가능한 수억원 호텔로 우리 회사는 시행사 유엘드와 2015년 7월 1336억여원에 시공 계약을 체결, 책임준공 방식의 단순 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분양은 시행사가 전적으로 맡는다.

지난 9월 20일 찾은 메가스타 영종은 알파벳 'E'자 모양의 건물 설계가 인상적이었다. 최초 설계 시에는 'H' 형태가

고려됐으나 공사 부지가 대형마트와 거의 맞닿아 있어 불가능했다. 현장 관계자는 "용적률, 효율성, 부지 내부 개방감을 고려해 중정부가 있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타 트윈 느낌이 있어 부지 내부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장은 ▶2015년 7월 부지 정리, 토공사 ▶2015년 11월 일부 구간 지하 골조 기초 작업 ▶2016년 10월 외부 철근 공사(커튼월), 외부 석재 마감 공사 ▶2017년 3월 내부 마감 공사 ▶2017년 9월 사 용승인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상업 운영을 준비 중이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ZERO

현장의 가장 큰 난제는 '자체 및 인력 수급'이었다. 메가스타 영종이 한창 공사를 진행하던 2015~2017년은 국내 주택 경기 활성화로 일부 기능공과 자재가 매우 부족한 시기였다. 그 여파는 메가스타 영종 현장에도 미쳤다. 외부 석재 마감 공사가 일부 지연된 것. 고심 끝에 현장은 옹벽, 수벽 위에 화강석으로 마감하는 일반적인 공법 대신 유닛 패널(Unit Panel) 공법을 적용했다. 이는 유닛 석재 패널을 타워 크레인 등 인양장비를 사용해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공법. 기존 공법보다 단가는 높지만 ▶투입되는 근로자가 적고 ▶작업 시간이 상



1 'E'자형 설계가 돋보이는 메가스타 영종의 조감도. 2 현장은 운서역 1번 출구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3 토공사와 지하 골조공사 병행 모습. 4 인터리어 마감 자체 근무 모습. 5 근로자들이 조경 식재를 심고 있다.

대적으로 짧으며 ▶균일한 품질이 확보되고 ▶골조 절대량도 감소해 특히 이번 공사에서 유용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들어서는 만큼 객실 시공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그러나 처음 작성된 도면에는 최신 호텔 인터리어 트렌드와는 맞지 않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마감재가 선정돼 있었다. 현장 은 본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세계 유수의 호텔 공사 노하우를 심본 발취해 설계를 변경했다. 시행사 역시 우리 회사의 노하우

를 신뢰해 마감재 변경을 허가했다. 유동근씨가 많은 도담자에 현장이 위치해 있는 만큼 안전 관리와 민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현장 직원들은 "민원인도 우리 회사의 미래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민원에 성실히 응했다. 안전 역시 공사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했다. '안전 인식'을 설치해 안전교육 미 이수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안전 계시판'을 별도로 뒤 작업자들이 공사 현황과 작업 내용 등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 10월 11일 현재 공정률은 99.9%로 준공(10월 중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준공 후에는 11월 초 상업 운영 전까지 하자보 수 작업과 업체 정산 작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간-자체-인력 부족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지나 '완공'이라는 결실선 이 수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안전 계시판'을 별도로 뒤 작업자들이 공사 현황과 작업 내용 등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INTERVIEW

"술한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초심(初心)!"

시간-자체-인력 부족 - 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직원들의 우직함과 열정 덕분이다. 메가스타 영종 현장 직원들이 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Q 자기소개 바랍니다.
관예현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 우리 현장에는 2015년 6월 품질파트장으로 처음 부임했습니다. 현장소장이었던 나상용 부장님이 2016년 11월 서울 테헤란로 237 개발사업 현장으로 가시면서 제가 현장소장 직을 물려받았죠. 1991년에 입사한 후 영종 힐스테이트, 감서 힐스테이트 등 주로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했는데요. 공공 성격을 띠지만 주택 성격도 있기도 해 메가스타 영종 현장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Q 북방개발 공사인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문 차장 우리 현장은 'E'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날개마다 호텔-레지던스-오피스텔이 임질하죠. 한 가지 시설물이면 마감재가 같지만, 다르니까 각 수 준에 맞는 마감 재료로 시공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설물마다, 층마다 다른 공법을 적용했죠. 이 부대 공법이 다양한 만큼 기능공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현장에도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죠. 6000원의 통행료를 내고 바다를 건너는 게 부담스러운 탓인지 기능공들이 영종도를 무척 먼 곳으로 여기더라고요.

Q 우리 현장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현장소장 현장 직원들은 메가시티 영종에 대한 현장소장, 문윤수 차장, 이주용 부장대우, 김범석 부장대우(왼쪽부터),

다. 만 20년의 회사 생활 동안 운동장-아파트-학교-여객터미널 등 다양한 객의 현장에서 근무했죠. 병원-반도체 현장에만 가면 국내 건축 분야는 다 경험해본 것 같아요(웃음).

이 부대 공법이 다양한 만큼 기능공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현장에도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죠. 6000원의 통행료를 내고 바다를 건너는 게 부담스러운 탓인지 기능공들이 영종도를 무척 먼 곳으로 여기더라고요. 김 부대 외판에 유닛 패널 공법을 적용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현장에서 제작한 유닛 석재 패널을 인양 장비를 사용해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공법인데, 기존 공법보다 단가는 높지만 인력이 적게 노력을 펼쳤습니다. 특히 공용로-중정부-복도-로비 등 모든 공용 공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죠. 운서역세권 인근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 건물은 디자인부터가 남다른데,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죠. 이 부대 화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유해 연기나 가스 발생 하는 자재는 철저히 배제하고, 불에 타지 않거나(불연) 불에 타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준불연) 단열재를 현장 전체에 적용했죠. 가설 소방시설을 갖춰 화재가 나더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소장 현장 직원들 덕분에 어려운 고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 안전 계시판에 공지했습니다. 모두가 안전 관리자란 책임감으로 공사에 임한 결과 '중대재해 ZERO'를 기록할 수 있었죠.

종을 '영종도의 랜드마크형 복합단지'로 만들기 위해 공사 초기부터 각고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특히 공용로-중정부-복도-로비 등 모든 공용 공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죠. 운서역세권 인근의 다른 건물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 건물은 디자인부터가 남다른데,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죠. 이 부대 화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애썼습니다. 유해 연기나 가스 발생 하는 자재는 철저히 배제하고, 불에 타지 않거나(불연) 불에 타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준불연) 단열재를 현장 전체에 적용했죠. 가설 소방시설을 갖춰 화재가 나더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소장 현장 직원들 덕분에 어려운 고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 안전 계시판에 공지했습니다. 모두가 안전 관리자란 책임감으로 공사에 임한 결과 '중대재해 ZERO'를 기록할 수 있었죠.

을 때 됐던 마음입니다. 그 따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대 저는 "하자를 최소화하자"란 다짐으로 현장 근무에 임했습니다. 메가스타 영종은 11월부터 상업 운영에 들어가는 데요.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모두 '매우 만족'하는 복합개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문 차장 최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중력을 발휘해 현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사에 계신 직원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장 현장 직원들 덕분에 어려운 고비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 안전 계시판에 공지했습니다. 모두가 안전 관리자란 책임감으로 공사에 임한 결과 '중대재해 ZERO'를 기록할 수 있었죠.



Q 준공을 앞둔 직원들의 각오 한마디.
김 부대 "초심을 기억하고 끝맺음을 잘하자!" 처음 이 사업장에 왔을 때



메가스타 영종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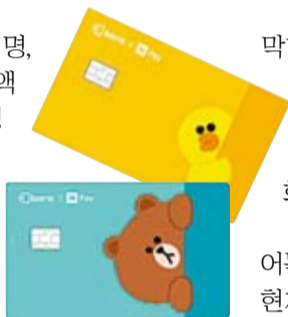
지난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크게 차별화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미래 금융의 모습'이라 불리며 전통 은행을 뒤흔들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소개한다.
글=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K뱅크, 카카오뱅크 돌풍 인터넷전문은행이 뜬다!

“한 달 만에 가입자수 300만 명, 예금과 적금을 포함한 수신액 1조9580억원, 체크카드 신청 216만 개.”

지난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성적표다. 최근 출범한 K뱅크나 카카오뱅크는 금융권에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만으로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가 오래전부터 기대해 온 변화다. 아직은 파악되지 않은 위험요소가 많아 데이터 활용, 소유 지배 구조 측면에서 서비스 범위나 종류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결될 경우 새로운 주자들은 더욱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K뱅크가 출시한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K뱅크

막혔다. 그러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추진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논의가 재점화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용어는 2000년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볼 때 '디지털기반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린다. 현재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2015년 설립)와 카카오뱅크로 대표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에 지점이 전혀 없거나 그 수가 매우 적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 업무의 대부분은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진다.

전통 은행과의 차별화가 강점!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전통 은행과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 시큐리티 퍼스트네트웍뱅크(SFNB)다. 이후 유럽, 일본 등 세계로 퍼졌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과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2002년 당시엔 비금융 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는*은 산본리(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조치) 원칙에 발목이 잡혔고,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출범하면 은행산업 전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가로

막혔다. 그러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추진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논의가 재점화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용어는 2000년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볼 때 '디지털기반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린다. 현재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2015년 설립)와 카카오뱅크로 대표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에 지점이 전혀 없거나 그 수가 매우 적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 업무의 대부분은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진다.

첫째,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에 맞춘 예금·대출 상품이 많고, SNS와 연계돼 있다. 둘째, 디지털 네트워크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 기존 채널보다 상당한 비용절감을 이루고 있다. 셋째, 수수료 절감과 특정 인증 절차를 강요하지 않

는 편리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 은행에 비해 부족한 혜택을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새로운 주자의 성공적인 출현은 전통 은행을 긴장시켰다. 물론 일대일 경쟁구도에서 전통 은행과의 직접 비교는 이른다. 신규사업자가 기업 금융, 자본시장 업무 등 금융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소화하기는 아직 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 금융 생태계의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향후 지배 구조 관련 제약 요인은 산본리라든지 개인정보 및 예금 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사가 선보이지 못했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흥행하는 3가지 이유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미국은행연합회(ABA)와 글로벌 컨설팅업체 캡제미니(Capgemini) 조사에 따르면 창구거래 선호도가 감소(2014년 21%→2015년 17%)하고, 모바일 채널 선호도(2014년 10%→2015년 12%)와 이용 비중(2013년 13%→2014년 22%)은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열풍은 이렇듯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흥행하는 두 번째

전통 은행 vs 인터넷전문은행

자료:중앙일보

| | 전통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
| 대면채널 | •지점·사무소·출장소 등이 핵심 채널 •통폐합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 의존도는 대면채널 비중이 높음 | •없음 •대면 영업을 위한 공간은 없애고, 본부 사무공간과 고객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스톱 오피스만 운영하는 형태 |
| 비대면 채널 | •인터넷, 모바일 뱅킹 •콜센터, ATM(유지, 관리비 증가와 수익 저하, 온라인 뱅킹으로 인한 의존도 감소로 운영 대수 줄어드는 상황) | •인터넷, 모바일 뱅킹(핵심채널) •콜센터, ATM(기존 금융사와의 제휴 통한 공동 ATM 운용 형태) |
| 서비스 | •대면·비대면 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풀 뱅킹' 서비스 제공 •비대면 채널 제공 상품 제한적 | •은행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 특화(ex. 예금·대출 전문, 풀 뱅킹 가능 등) •유지, 관리비 감소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 |
| 영업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시간 외 온라인 뱅킹으로 가능한 서비스는 제한적 | •24시간 365일 |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으로 출범 전통 은행에 새로운 자극제 역할 톡톡 '미래의 은행' 모습 될 것

이유는 대출 상품의 경쟁력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제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가입자가 폭증한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도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의 신용평가와 낮은 금리의 대출, 빠른 속도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흥행시킨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편의점에서의 출금·이체 수수료 무료 혜택뿐 아니라*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회사가 협력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이자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해외송금 수수료도 전통 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세 번째 이유는 기존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영업시간이 짧은 전통 은행과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 영업한다. 주말에도 간단히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투명하게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문자나 '카톡'으로 쉽게 송금하고 24시간 자동 '톡 상담'까지 된다.

이러한 성장 속도라면 인터넷전문은

은행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은행의 모습이 될 것이다. 미래 은행은 일부 거대 은행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주도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변화하며 발전할 것이다.

개인정보 노출에는 유의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라면 '모바일뱅크 서비스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비스나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인인증서 대신 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손해배상 관련 내용도 파악해둬야 한다. 손해배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들은 편리성과 접근성 이면에 있는 개인정보 노출 등에 늘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금융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카카오뱅크 10대 금융 서비스

-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간편 결제**
- 송금인과 수취인을 직접 연결하는 **간편 송금**
- **모바일 기반** paper-less 공과금 납부
- **중신용자**를 위한 합리적 금리의 신용 대출
-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금리의 **생활형 담보 대출**
- **쉽고 빠른** 전·월세 보증금 담보 대출
- **모든 계좌를 한눈에 보는** 금융 자산 통합 관리
- 고객 모두에게 **24시간** 제공되는 나만의 금융비서(금융봇)*
- 고객이 원하는 **포인트로** 제공받는 예금이자
- Social life에 최적화된 **맞춤형 예·적금**

1) 금융봇·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고객센터
자료:Platum



K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이용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카카오뱅크



공감의 시대, 소통이 생존인 이유 너와 나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공감한다, 고로 존재한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 전염병의 공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 그래서 '위생'은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되던 사안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위생'을 이유로 엄마와 아기의 신체적 접촉이 권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면역력이 부족한 아기가 엄마로부터 감염돼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버려진 아기들을 보호해주는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기들이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 전염병에 감염된 것도 아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원인은 어이없게도 아기의 '의욕 상실' 때문이었다. 당시는 엄마는 물론이고 간호사들조차 아기와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아기들은 어떤 대상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삶의 의욕'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아기와 접촉을 다시 허용하자 아기들은 물리보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최근 들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것은 '소통'과 '공감'이다. 아기가 그토록 원했던 건 누군가와 공감하고 교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아기가 보이는 이 공감에 대한 욕망은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하지 못하면 심지어 죽음

을 선택하기도 하니, 그러니 호모 엠파티쿠스, 즉 '공감하는 인간'이란 말이 가능하다. '공감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엇이 공감의시대를 열었나

사실 '공감'은 이전부터 계속 우리가 써왔던 단어지만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건 뉴미디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혁명 때문이다. 이제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뻗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지 오래다. 지금은 한 차원 더 나아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네트워크가 전세계와 접촉하는 시대로 돌입했다. 스마트폰은 그 접점이고, SNS는 세상과 연결해주는 마법의 랩탑이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감정을 토로하며, 어떤 이들은 거기에 공감해준다.

과거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우리가 겪었던 건 분류하는 삶이었다. 우리는 나와 타자, 동과 서, 성별과 나이, 학력, 계층, 문과와 이과, 남과 북, 심지어는 프로 야구를 봐도 지역 연고를 분리하면서 살았다. 그 분류의 삶은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결국 빈부의 극단적 분류라는 사회적 희생을 동반했다.

나와 타자는 늘 경쟁관계였다. 우리는 공통점을 찾기보다 차이점을 찾는 데 익숙해졌다. 사실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환경 재앙은 나와 남을 분리하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아프리카는 환경재앙에 있어서 거의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나라지만, 유럽이나 미대륙이 아무렇지 않게 뿜어대는 온실가스에 의해 처참하게 도륙되고 있다. 만일 아프리카를 타자가 아니라 우리로 본다면 과연 이렇게 살아가 수 있을까. '공감의 시대'는 바로 이런 위기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분류하는 삶이 전 지구를 위협하며 어떤 비등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바보스럽게도 그때서야 공존을 생각하게 됐다. 공감은 따라서 차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는 삶이다.

호모 엠파티쿠스들의공존의세상

'공감의 시대'라고 하면 어딘가 전 지구적인 거창한 거대담론을 떠올린다. 물론 공감은 거창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과 유리된 것은 아니다. 흔히

공감의 시대에 소통과 공감은
그자체가 생존이 된다.
생존이란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공존'을 의미한다.

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나 완전 공감했어"라고 말할 때 그 공감은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 일상적이고 소소한 공감이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만날 때 거창한 거대담론이 되기도 한다. SNS를 타고 일찌감치 세계 구석구석으로 날아간 한류는 소소하게 시작됐지만, 그 결과 전 지구적인 반향으로 이어졌다.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에서 벌어지는 민주화의 물결은 누군가 SNS에 올린 작은 공감 어린 말로 비롯되기도 한다. 그 한마디에 표현된 공감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한다.

공감이 바뀌놓은 풍경 중 두드러지는 건 전문가들의 시대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란 특정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일컫는데, 이 특정 분야라는 것이 과거 분류 시대의 산물이다. 하지만 공감의 시대로 바뀌면서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다운 호모 엠파티쿠스들

이 등장했다. 누구나 공감을 표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타인의 글에 공감을 표하기도 하면서 대중들은 저마다의 전문가가 됐다. 엄마의 입장에서 보는 경제라든가,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는 정치나 시사문제 등은 그 자체로 분류가 아닌 통합의 시각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가들의 멋진 미사여구보다 더 효과적인 게 아줌마들의 수다스럽지만 실제 생활에서 나오는 입소문이다. 보통 사람과는 특별히 다르다고 대접받는 전문가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고 대신 우리와 똑같이 공감하며 함께 느끼기를 원하는 호모 엠파티쿠스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공감의 시대에는 소통과 공감은 부수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존이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존은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공존'의 의미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갖는가를 읽어내지 못하면 자칫 그 갈등의 파장은 끝장으로 치달을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는 이미 생산자의 마인드를 가진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읽어내고 공감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공감한다'는 말의 무게는 이처럼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글/그림=웹툰작가 손하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 '무민'의 고향인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무민원화展>이 열린다. 무민을 탄생시킨 작가 토베 얀손이 직접 그린 원화를 비롯해 70여 년의 무민의 연대기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42
2017/10/11/Wednesday

세계인이 사랑하는 트롤 무민원화展

~2017.11.26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 02-837-6611



핀란드에서 태어나 유럽을 거쳐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무민. 무민의 탄생부터 오늘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 <무민원화展>이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무민의 어머니인 '토베 얀손'이 직접 그린 원화부터 무민 저작권사가 소장한 미공개 작품까지 350점의 다양한 작품이 국내에 최초로 소개된다. 선보이는 작품들은 핀란드 탐페레 무민박물관, 무민캐릭터스, 헬싱키시립미술관, 헬싱키연극박물관 등에 소장된 것들이다.

전시는 총 7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섹션 1 '무민의 탄생, 신화에서 소설로'에서는 무민 소설의 다양한 삽화와 원화를, 섹션 2~4에서는 각국의 무민 도서와 토베 얀손의 오리지널 스케치·드로잉을 선보인다. 섹션 5에서는 무민 영상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는 무민을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토베 얀손의 작품 세계와 삶을 조망하고 멀티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무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민의 세계에 푹 빠지는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스웨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캠페인 포스터, 컬러프린트, 51×72cm, Private collection, 2 카드를 위한 드로잉, 1940년대, 과슈, 종이, 27×21cm, Private collection, 3 <무민 골짜기의 겨울> 삽화, 잉크드로잉, 종이, 9×14cm, Private collection.

2017

Go Together

아름다운 이야기 공모전

접수기간

2017. 10. 12
~ 10. 27

“함께하여 더욱 찬란한, 아름다운 상생협력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공모내용

주제 현대건설과(협력사와) 함께 일하며 있었던 훈훈한 상생협력 사례 및 시기 분량 A4 1매 내외의 자유 형식 접수 news@hdec.co.kr (이메일 접수)

※ 근무 현장 혹은 소속 회사명을 명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현대건설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응모자격 현대건설 및 협력사 임직원 누구나

시상 내역

| | | | | |
|---------------|-----------|----------------|---------|-----------------|
| 대상 / 1명 | 최우수상 / 2명 | 우수상 / 3명 | 가작 / 7명 | GO-TOGETHER 상 |
| 가족여행상품권 100만원 | 고프로 이어로 4 | 백화점상품권 10만원 상당 | 홍삼정세트 | 최대 응모 현장 혹은 협력사 |

※참가상(협력사 한정) 소정의 기념품

문의 현대건설 스토리 공모전 담당자

☎ 02-746-2711 ✉ news@hdec.co.kr